

# 고용보험 가입자 27만명 증가세 서비스·고령층 늘고, 청년 줄었다

고용부 '지난달 노동시장 동향' 4개월 연속 20만명대 증가세 유지 제조업 11개월 연속 감소세 지속 60세 이상 가입자 증가분 75%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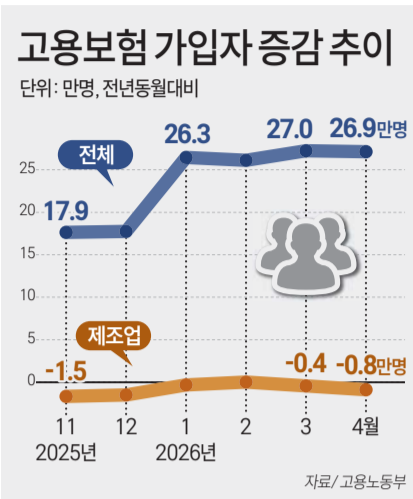
올해 들어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수가 4개월 연속 20만 명대 증가세를 유지했다.

다만,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과 60세 이상 고령층 가입자는 증가한 반면, 경제의 허리인 제조업과 청년층의 고용 지표는 여전히 감소세가 유지됐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2026년 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수는 1580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만 9000명(1.7%) 증가했다.

가입자 증가를 주도한 것은 서비스업이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1년 전보다 28만 4000명(2.6%)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보건복지업(11만 7000명), 숙박·음식점업(5만 4000명), 사업서비스업(2만 6000명) 등에서 고른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은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제조업 가입자는 8000명 줄어 감소폭이 전보다 확대됐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관련 업종은 소폭 늘었으나, 금속가공과 자동차 제조업 등의 부진이 발목을 잡았다. 특히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는 2023년 10월부터 31개월째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역시 업황 불황의 여파로 3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연령별 고용 시장도 명암이 뚜렷하다. 60세 이상 가입자는 전년보다 20만 6000명 늘어나며 전체 증가분의 75% 이상을 차지했다. 사실상 고령층이 고용 시장의 양적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29세 이하 청년층 가입자는 6만 4000명 줄며 2022년 9월 이후 44개월째 감소세다.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인구 감소와 2024년 5월 이후 청년 고용률 하락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40대 가입자 또한 7000명 감소했다.

노동 시장의 활력을 나타내는 구인배수(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는 0.45를 기록해 전년 동월(0.43) 대비 소폭 개선됐다. 노동부는 다만 본격적인 회복 신호로 보지 않는다. 천 과장은 "0.45라는 수치가 지난해보다는 좋아졌지만, 연간 평균치인 0.56 정도까지는 가야 한다"며 "장기간 감소 흐름을 고려하면 아직 회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자와 지급액은 모두 감소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0만 명으로 전년 대비 3000명(-2.7%) 줄었으며, 전체 지급액은 1조 1091억원으로 1년 전보다 480억원 감소했다. 이는 건설업과 금융보험업 등에서 구직급여 신청이 줄어든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코트라는 지난 7일 일본 도쿄에서 글로벌 K 페스티벌 종합행사인 '케이콘(K-CON) 재팬' 연계 'K라이프스타일 B2B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행사에 참여한 현지 바이어가 우리기업 제품을 체험하고 있는 모습. /코트라

## 日 'K-라이프스타일' 열풍 코트라, 1780만弗 수출상담

(역대 최대 규모)

도쿄서 케이콘 연계 B2B 수출상담회 국내 중소기업 48곳, 79개사와 일대일 상담 수출 초보 14개사 진출 교두보 마련

한일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 등 교류 무드가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 도쿄 한복판에서 K-팝 문화와 산업이 결합한 대규모 수출 마케팅 행사가 열렸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지난 7일 일본 도쿄에서 글로벌 K-페스티벌인 '케이콘(K-CON) 재팬'과 연계해 'K-라이프스타일 B2B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상담회에는 국내 유망 소비재 중소기업 48개사가 참여해 현지 유력 바이어 79개사와 400건이 넘는 일대일 상담을 진행했다. 그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인 1780만 달러의 수출 MOU가 체결되는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거뒀다.

이번 행사는 CJENM이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K-컬처 컨벤션인 '케이콘'과 연계해, 한류 콘텐츠로 형성된 현지의 후호적 소비 트렌드를 비즈니스 기회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트라는 CJENM,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과 협력해 우리 기업의 일본 시장 안착을 지원했다.

특히 코트라는 B2B 상담 이후 바이어들을 8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B2C 관측전인 'K-컬렉션'에 초청했다. 바이어가 현장에서 일본 소비자들의 실시간 반응을 직접 확인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수출

계약의 성사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대일 5대 유망 소비재 수출은 약 31%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화장품 분야는 2021년부터 5년 연속 일본 수입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며, 올해는 화장품 단일 품목으로만 대일 수출액이 1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열기는 현장에서도 확인됐다. K-뷰티 관련 일부 기업은 행사 시작 전 상담 예약이 초기에 마감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아울러 패션, 생활용품, 식품 등 분야별 유망 기업들이 고르게 참여하며 K-웨이브가 특정 품목을 넘어 라이프스타일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증명했다.

상담회에 참여한 내수 및 수출 초보 기업 14개사 또한 협력재단과의 연계를 통해 일본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코트라는 이번 상담회가 초기 단계 기업들에게 일본 진출의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용민 코트라 일본지역본부장은 "일본은 K-팝과 K-드라마가 견인한 한류가 기존의 일시적 붐을 넘어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자리 잡는 단계로, 안정적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이라며 "문화·산업 연계형 수출 마케팅으로 지원 효과를 높이고, 우리 K-소비재 기업들이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송미령 장관, 초등학교 과일간식 현장점검

농식품부, 위생·안전 중요 강조

초등생이 학교에서 섭취하는 과일을 대상으로 정부가 안전성 점검에 나섰다. 이는 올해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 시행에 따른 점검이다. 과거 시범적으로 실시된 바 있는 이 사업은, 4년 전 중단됐다가 현 정부 들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안성의 농협 농식품물류센터 및 광덕초를 찾았다. 그는 현장 배식에 참여하고 과일간식 사업 추진현황 등을 살폈다.

농식품물류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과일간식용 컵과일의 선별·세척·절단·포장 등 생산 공정을 둘러봤다. 그는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인 만큼, 위생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 준수와 콜드체인 유지 등 철저한 품질관리로, 안전한 과일간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 장관은 또 안성광덕초 돌봄교실을 찾아 직접 컵과일을 만들고 배식에도 참여했다. 이 학교는 다문화 학생 비

중이 90%에 달할 정도로 문화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는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은 단순한 간식 지원을 넘어, 아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개선사항을 제안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18~2022년 기간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바 있다. 이후 현장 만족도가 높고 사업의 효과성이 높다는 평가에 따라 이재명 정부 먹거리 지원 국정과제로 선정돼, 올해 재개됐다. 지난 4월부터, 초·중·고·대학에 참여 중인 1~2학년 약 60만 명(계획)을 대상으로 국산 과일·과채 간식을 주 1회 이상 공급하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aT, AI 전환 속도... 대국민 서비스 강화 나선다

조직·경영분과 혁신자문위원회 열어 농산물 알뜰 소비정보 플랫폼 구축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인공지능(AI) 도입에 속도를 낸다.

11일 공사에 따르면 aT는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조직·경영분과 혁신자문위원회를 열고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

aT혁신자문위원회는 지난 4월 생산·수출분과 자문회의를 통해 우리 농수축산업 생산 연계 지원 및 K-푸드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공사 중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번



aT는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조직·경영분과 혁신자문위원회를 열고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 /aT

조직·경영분과 회의에서는 공사의 AI 전환전략을 비롯해, AI를 활용한 대표 과제의 추진 현황에 공유하고, 실질적 성과 창출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사의 AI전환 전략

의 추진체계, AI를 공사 경영·사업에 반영한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올해 AX(AI전환) 대표과제인 '농산물 알뜰 소비정보 플랫폼' 구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해수부-교육부, 동남권 해양 전문인재 양성

'5극3특' 국토균형발전 일환

해양수산부가 국내 동남권 지역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부와 공조를 추진한다. 두 부처는 '동남권 해양수도권 구축'에 힘을 모은다.

해수부와 교육부는 11일 부산대에서 '해양수도권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식 및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두 부처는 조선·해양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해양전문인재를 양성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5극3특'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이다. 수도권 1극체제에서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전북·제주·강원) 체제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협약 체결 직후에는 간담회를 갖고, 조선·해양 분야 관련 대학·기관 등 현

장 목소리도 청취했다.

교육부는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산업의 첨단화·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자원 공유 및 공동연구 추진 등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계가 요구하는 고속선 해양전문인재를 지역 대학들이 양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 총 1200억원을 지원하는 '5극3특 공유대학' 사업을 통해, 지역의 거점국립대와 국가중심국립대, 사립대가 조선·해양 인재를 효율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렇게 키운 인재가 동남권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해수부는 대학과 협력해 조선·해양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에 나선다. 교육부의 지역성장 인재양성 체계 사업과 연계해 전문인재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